아세안의 창설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안보 없는 독립

싱가포르는 스스로 독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으나, 제C편 제II장에서 설명하는 정치적·종족적 긴장 끝에 2년 뒤 연방을 떠났습니다. 리콴유가 서명한 독립 선언문은 1965년 8월 9일 방송되었고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1] 새 국가는 1965년 9월 21일 117번째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했고, 1965년 10월 15일 영연방에 가입했습니다.[2]

승인이 안보를 가져다주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대한 대결정책*(Konfrontasi)*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63년 1월 시작되어 1966년 8월에야 공식적으로 끝난 침투와 파괴 공작이었습니다.[3] 1965년 3월 10일 두 명의 인도네시아 해병이 오차드 로드의 맥도널드 하우스(MacDonald House)에서 폭탄을 터뜨려 3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4] 싱가포르가 물의 대부분을 공급받던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껄끄러웠습니다. 섬의 방위를 담당하고 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영국군 기지도 곧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첫 몇 해로부터 건국 세대는 이후 싱가포르 외교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국은 이웃을 고를 수 없고 강대국의 선의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국은 가능한 한 많은 강대국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느 나라에도 자신을 위협으로 볼 이유를 주지 않아야 하며, 분쟁의 대가를 크게 만드는 지역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립 2년 뒤의 아세안 창설은 이 교훈의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1967년 방콕 선언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장관들이 방콕에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자는 아담 말리크(Adam Malik), 툰 압둘 라작(Tun Abdul Razak), 나르시소 라모스(Narciso Ramos), S. 라자라트남, 타낫 코만(Thanat Khoman)이었습니다.[5] 이 문서는 짧았으며, 경제·사회·문화·기술·행정 분야의 지역 협력과 정의 및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사무국도, 법원도, 구속력 있는 의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안이 소박했던 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다섯 나라는 막 대결 상태에서 벗어난 참이었고, 그중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 반란에 직면해 있었으며, 어느 나라도 지역 기구에 주권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중 단연 가장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앞으로는 이웃 나라들과의 이견을 협의로 해결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싱가포르에게 이 선언은 자국의 독립을 자카르타와 쿠알라룸푸르가 받아들인 지역적 틀 안에 자리매김해 주었습니다. 서명식 성명에서 라자라트남은 지역주의가 국가적 사고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남아시아가 발칸화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6] 그의 성명 전문은 싱가포르 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에 보존되어 있으며, 기록원은 싱가포르가 보유한 선언문 원본도 소장하고 있습니다.[7]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전제조건으로서의 화해

초기 아세안의 가치는 그 사업보다는 그것이 만들어 낸 협의의 관행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창설 직후 그 관행을 시험했습니다. 1968년 10월 17일 싱가포르는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의 사면 탄원에도 불구하고 맥도널드 하우스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해병을 교수형에 처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8] 5년 뒤 리콴유는 인도네시아 방문 중 그들의 묘소에 꽃을 뿌렸고, 이 행동은 사건을 매듭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9] 이 일화는 싱가포르 외교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국 법의 적용에서는 단호하되, 원칙이 확립되고 나면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 발리에서 열린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기구에 법적 행동 규범을 부여했습니다. 1976년 2월 24일 서명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은 당사국들에게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포기를 의무화했습니다.[10] 이 조약은 이후 아세안 중심 외교에 참여하려는 역외 강대국들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은 2009년에 가입했습니다.[11]

캄보디아와 1980년대의 외교

아세안은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의 위기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얻었습니다. 최전선 국가인 태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베트남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12] 10년 넘게 다섯 나라는 유엔에서 베트남이 세운 정부가 캄보디아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국제 의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1982년 캄보디아 세 정파의 불안한 연합인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구성을 도왔으며, 1991년 파리 협정으로 유엔 감독하의 해결의 길이 열릴 때까지 그 노력을 이어 갔습니다.[1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 외교관들은 이 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엔에서 펼친 논거는 2022년에 다시 등장하게 될 논거였습니다. 더 큰 국가가 작은 이웃 국가를 침공하여 자신이 고른 정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국가에게 이 원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문제를 다룬 10년은 또한 싱가포르 외교부에 유엔에서의 연합 형성 경험을 쌓은 한 세대를 안겨 주었고, 싱가포르는 이후 이를 경제 및 법률 문제에 활용했습니다.[14]

선언에서 경제공동체로

냉전의 종식으로 아세안은 확대되고 경제로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1월에 가입했습니다. 베트남이 1995년 7월,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7년 7월, 캄보디아가 1999년 4월에 뒤따랐습니다.[15] 동티모르는 2025년 10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1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16]

경제 의제는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에 관한 기본협정이 1992년 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었고, 자유무역지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17] 역시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은 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했으며 2008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18]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2015년 12월 31일 출범했습니다.[19] 2020년대 중반 이 기구는 약 6억 8,300만 명의 인구와 약 4조 5,000억 미국달러로 추정되는 명목 생산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20]

싱가포르에게 경제공동체는 시장인 동시에 배후지입니다. 싱가포르의 은행들은 역내 전역에 대출을 하고, 자산운용사들은 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패밀리오피스들은 동남아시아 곳곳에 자산을 보유합니다. 제I편 제I장에서 살펴보는 다국적 그룹의 지역본부들이 싱가포르를 택하는 것은 아세안이 하나로 묶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싱가포르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세안의 통합은 유럽의 통합보다 여전히 얕고, 합의(consensus) 원칙은 의사결정을 더디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구는 거의 60년 동안 회원국 간의 평화를 지켜 왔으며, 이것이야말로 금융센터의 다른 모든 서비스가 의존하는 조건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Wikipedia, “Proclamation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8월 9일자 선언문, E. W. Barker가 기초하고 리콴유가 서명, 같은 날 Radio Singapore가 방송하고 관보에 게재. ↩
2. Wikipedia, “Foreign relations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9월 21일 박수로 117번째 회원국으로 유엔 가입; 1965년 10월 15일부터 22번째 회원국으로 영연방 가입. ↩
3. Wikipedia, “Indonesia–Malaysia confront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정보상자는 분쟁 기간을 1963년 1월 20일부터 1966년 8월 11일까지로 표기. ↩
4. Wikipedia, “MacDonald House bombin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3월 10일 오후 3시 7분 폭발, 2명 즉사 및 2일 후 세 번째 희생자 사망, 33명 부상; 범인은 Harun bin Said와 Osman bin Haji Mohamed Ali. ↩
5. Wikipedia, “ASEAN Declar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7년 8월 8일 방콕 사란롬 궁전 본관에서 Adam Malik(인도네시아), Tun Abdul Razak(말레이시아), Narciso Ramos(필리핀), S. Rajaratnam(싱가포르) 및 Thanat Khoman(태국)이 선언에 서명. ↩
6. Wikipedia, “ASEAN Declar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창설 장관들의 성명에 관한 절: 지역적 사고가 민족주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라자라트남의 주장, “balkanisation”에 대한 경고 및 싱가포르 대표단의 경제적 제안(공동 해운회사, 산업 합리화, 쌀 생산국 간 협력). ↩
7.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Statement by S. Rajaratnam,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t the Signing of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8 August 1967”, Archives Online(연설 기록); NAS, 방콕 선언 싱가포르 보유본에 관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항목.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 Wikipedia, “MacDonald House bombin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항소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면 탄원에도 불구하고 1968년 10월 17일 창이 교도소에서 두 해병 처형. ↩
9. Wikipedia, “MacDonald House bombin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3년 리콴유가 인도네시아의 묘소를 방문하여 “scattered flowers on them”, 이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 ↩
10. Wikipedia,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6년 2월 24일 원회원국 정상들이 서명; 독립과 주권의 상호 존중,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포기 및 효과적 협력의 원칙. ↩
11. Wikipedia,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3년 10월 8일 중국, 2009년 7월 23일 미국 가입;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62개 항목의 당사국 표. ↩
12. Wikipedia, “Cambodian–Vietnamese War”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싱가포르는 베트남군의 즉각 철수라는 태국의 요구를 지지; 아세안은 점령을 “intolerable threat to the region's security and stability”로 간주. ↩
13. Wikipedia, “Cambodian–Vietnamese War”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9년 유엔 신임장위원회의 민주캄푸치아 의석 인정, 1982년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 구성, 1991년 파리 평화협정 및 유엔 주도의 과도기. ↩
14. 캄보디아 문제를 둘러싼 아세안 외교에서 싱가포르의 역할에 관하여는 Michael Leifer, *Singapore's Foreign Policy: Coping with Vulnerability*, London, Routledge, 2000, 제4장 및 유엔 캠페인에 관한 토미 코(Tommy Koh)와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의 회고록과 에세이 참조. ↩
15. Wikipedia, “ASEA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브루나이 1984년 1월 7일, 베트남 1995년 7월 28일, 라오스와 미얀마 1997년 7월 23일, 캄보디아 1999년 4월 30일 가입.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6. Wikipedia, “ASEA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동티모르는 2025년 10월 26일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가입; Wikipedia, “ASEAN Charter”: 동티모르는 2025년 10월 비준서 기탁. ↩
17. Wikipedia, “ASEA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92년 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AFTA 협정 서명; 정보상자는 자유무역지대의 기점을 1993년 1월 1일로 표기. ↩
18. Wikipedia, “ASEAN Charter”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7년 11월 20일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에서 서명, 마지막 비준 30일 후인 2008년 12월 발효, 2008년 12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출범; 수린 피추완(Surin Pitsuwan) 사무총장은 아세안을 “a rules-based and people-oriented organisation with its own legal personality”로 묘사. ↩
19. Wikipedia, “ASEA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7년 11월 20일 AEC 청사진 채택, 공동체 출범을 앞당겨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기로 함. ↩
20. Wikipedia, “ASEA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정보상자: 인구 683,290,000명(2023년 추정); 명목 GDP 4조 5,100억 미국달러(2026년 추정).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